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⑫ 축생과 이류중행



▶한줄요약
선승들의 다양한 출가담 중에는 짐승들로 비롯된 사례도 많이 있다.

짐승과의 교감·교훈서 비롯된 출가담

22. 사냥꾼의 참회

선승의 기구한 출가 사연을 살펴보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도 지나쳐서는 안 될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선승의 출가에 짐승이 개입한 현상이다. 눈부시게 성불한 욱면비의 전생이 소였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소는 부석사 가는 가파른 길로 불경을 실어가는 일을 했는데 그 선업과 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아 수행자가 되었다. 반대로 재물욕을 내려두지 못한 스님이 뱀으로 환생한 이야기는 우리 설화에 더 많다.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 되는 환생의 메카니즘을 염두에 두며 선승의 출가 과정에 나타난 짐승의 함의를 살핀다.

가장 빈번하게 생성된 짐승 담론은 사냥과 관련된 것이다. 혼수(混修, 1320~1392)는 아버지 숙령(叔鴒)이 용주(龍州, 예천) 현감으로 있을 때 태어났다. 숙령이 사냥을 나가 사슴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하자 사슴은 달아났지만 멈추어 되돌아보기를 거듭했다. 숙령도 이상해서 돌아보니 사슴 새끼들이 어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짐승들이 새끼를 염려하는 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랴?' 이렇게 각성한 숙령은 그 뒤로 사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죽었다. 어머니는 출가하려는 혼수에게 말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새끼를 염려하는 어미 사슴을 보고 느낀 바가 커서 사냥하기를 그만뒀다. 이는 네가 강보의 시절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자비의 도리를 나타내 보인 것이니라." 혼수는 어머니의 지지를 얻고 출가했다. 사슴의 모성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왔고 결국 아들 혼수의 출가를 이룬 것이다.

혜통(惠通, 7세기 경)은 더 생생하게 짐승의 모성을 목격했다. 출가 전 혜통이 집 동쪽 시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살을 발라내고 뼈를 마당에 버렸다. 이튿날 아침 그 뼈가 보이지 않아 핏자국을 따라 가보았다. 뼈는 수달이 살던 굴속으로 들어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서 앉아 있었다. 수달은 육신을 다 뺏기고도 모성을 포기하지 않고 새끼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혜통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감탄했다. 오랫동안 주저주저하다가 문득 사람의 세속을 버리고 출가했다.[郎望見 驚異久之 感歎躊躇 便棄俗出家] 혜통은 왜 출가를 해야 했을까? 사람들이 미천하고 어리석다고 얕보아온 짐승이 사실은 사람 못지않은 자비심과 모성을 갖고 있다는 진실을 혜통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짐승들을 근거 없이 깔보고 습관적으로 죽여 온 그간의 행동을 후회했다. 새끼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수달을 죽인 자신의 사냥 행위는 새끼에 대한 어미의 사랑을 짓밟고 수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것이라고 통각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목격하고 자기의 잔혹함을 알게 된 혜통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고민하고 주저했다. 근본적으로 참회하고 살생을 중단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은 출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진표(眞表, 신라 경덕왕대)도 어릴 적부터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즐겼다. 어느 날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먹을 요량으로 개구리를 잡아 코와 입을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놓았다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1년이 흐른 뒤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개구리는 버들가지에 꿰인 채 여전히 울고 있었다. 깊은 자책에 빠진 진표는 개구리들을 풀어주고 출가를 결심했다. 사냥을 즐기던 자장(慈藏, 590~658)도 잡은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출가했다.

23. 짐승의 신심

짐승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속리산으로 가던 진표(眞表)를 만났다. 소는 진표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소의 주인이 자기 소가 무슨 까닭으로 저러는지 물었다. "소는 비록 축생이지만 안으로는 현명하여 나로부터 수계(受戒)를 받는 것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알기에 저렇게 울고 있다오." 진표가 이

죽인 짐승의 신이한 모성 본 후 출가
이류중행 실천하는 불보살로 볼 수도
남전·신효 등 출가 인연으로 이어져
"두두물물이 정법 보여주고 법문 설해"



'이류중행' 실천했던 남전 보우 진영. 사진제공=정운 스님

렇게 설명해주니 소 주인은 큰절을 올리고 다시 말했다. "축생도 저렇게 깊은 신심이 있거늘 사람인 제가 어찌 계법에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숙연이 있어 선지식을 만났을 터이니 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죄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신심 돈독한 소의 존재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세속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고 출가를 결심하도록 이끈 것이다.

진표가 중생제도를 위해 아슬라주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수중으로 초대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수계를 해주기를 서원한 것이나, 용왕이 옥으로 만든 가사를 바치고 팔만 권속을 거느리고 금산사로 온 것이나, 명주 해변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 자라 등이 몸을 엮어 진표가 밟고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축생인 소가 신심을 낸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그해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주리자 무수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뛰어올랐다. 진표가 법문을 해준 '미물'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죽음을 면했다. 물속 미물들조차 불법을 알고 스스로를 헌신하여 불법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

24. 이류중행

출가의 길에서 선승 앞에 나타난 짐승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을 실천하는 불보살로 볼 수도 있겠다. 이류중행이란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짐승을 비롯한 육도(六道)의 존재들로 환생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전(南泉, 748~834)이 거듭 언급되어왔다. 남전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는 물소로 태어나 열심히 쟁기를 끌겠다며 제자들 앞에서 이류중행 실행을 다짐했다. '털가죽을 입고 뿔을 달고[披毛戴角]'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류중행을 생각하면 사람인 우리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되돌아보게 된다. 내 앞에 있던 저 소나 개가 원생한 보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짐승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새롭게 가다듬어질 수밖에 없다.

신효(信孝, 통일신라)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머니는 육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을 들지 않으니 언제나 사냥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사냥에서 학 다섯 마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았다.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다가가 보니 깃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신효는 무심코 그 깃을 눈에 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염소, 개 등 소위 우마육축(牛馬六畜)으로 보였다. 〈삼국유사〉는 신효가 "그래서 고기를 얻지 못했다[故不得肉]"고 표현했다. 신효의 내면을 짐작해본다. 학의 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서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짐승들도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다. 신효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짐승을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육고기 반찬을 올려야 했다. 결국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효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살던 집을 효가원(孝家院)이라는 절로 만들고 스스로 출가하였다. 짐승과 사람의 본모습에 대한 충격적 각성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그 뒤 어느 날 신효에게 스님 다섯 분이 찾아왔다. 그들은 신효에게 가사(袈裟) 한 쪽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신효가 학의 깃을 내주니 그들은 한 쪽이 찢어진 가사를 내놓고 그 깃을 찢어진 곳에 붙였다. 꼭 맞았다. 이들은 다섯 마리 학의 모습으로 신효 앞에 나타나 깃을 남기고 떠났던 오류성중(五類聖衆, 문수·지장·관음·대세지·석가)이었다. 신효가 살생을 중단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류(異類)로 화생한 것이었다.

화신보살이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이야기도 있다. 통일신라시대 사냥꾼 이순석(李順碩)은 친구와 함께 철원 보개산에 들어가 금빛 멧돼지를 쏘아 명중시켰다. 금빛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 환희봉 쪽으로 달아났다. 핏자국을 따라 갔더니 금빛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지장보살의 석상이 있었다. 지장보살상은 머리 부분이 드러나 있었지만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 왼쪽 어깨 부분에 화살이 꽂혀 있었으니 이순석이 쏜 것이었다. 화살을 뽑아주고 몸체를 파내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성인께서 살생을 일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같은 신이한 변화를 보이셨다. 내일 땅에서 나오셔서 샘가 돌 위에 앉아 계신다면 마땅히 출가하여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절을 짓고 도를 닦자"고 맹세했다.

다음날 와 보니 과연 지장보살상이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출가하였으니 때는 720년이었고 무리 3백여 명을 이끌고 와서 암자를 창건했으니 철원 석대암(石臺庵)이었다. 두 사람이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그 대 위에 앉아 정진하였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25. 두두물물

세상 온갖 존재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고 소통을 꾀한다. 선승은 다기한 그 신호 중에서 충격적이지만 가장 진실한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가를 결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생들은 그 고구정녕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명에서 비롯한 망념과 업식, 통념과 편견이 쏟아지고 쌓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폭류(瀑流, 폭포수)'에 휩쓸려가는 것에 비유했다. 거센 폭류로부터 스스로 헤쳐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고 좀 더 직접적으로 나투어 중생이 온 존재의 신호를 포착하고 폭류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려는 불보살의 가호가 끊임없었다. 이류중행은 그런 원과 연민을 가진 불보살의 모습이었다.

가려지고 드러난 차이는 있지만 육도중생 어느 하나 이류중행의 모습 아닌 게 없다. 도망치면서도 뒤따라오는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 사슴이나, 뼈만 남아도 굴속으로 돌아가 어린 새끼를 얼싸안은 수달이나, 스님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는 소나, 버들가지에 꿰어 일 년간 울부짖었던 개구리, 그 모두가 그 자체로 평등한 화신 불보살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정법을 보여주고 법문을 설한다고 했을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6